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상품별 세계 교역 구조 변화와 시사점
- 하락하는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기여도

목 차

- 상품별 세계 교역 구조 변화와 시사점
 - 하락하는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기여도

Executive Summary	i
1.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세 둔화	1
2. 세계 자본재 교역 구조의 변화	2
3. 시사점	13
<부 록>	15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동 북 아 연 구 실 : 조 호 정 연 구 위 원 (2072-6217, chjss@hri.co.kr)

Executive Summary

□ 상품별 세계 교역 구조 변화와 시사점

- 하락하는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기여도

■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세 둔화

세계 자본재 교역 규모는 2014년 약 5.4조 달러로 1995년 이후 약 4배 확대됐다. 그러나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세는 2000~2005년 연평균 11.4%를 정점으로 2010~2014년에는 6.8%로 둔화되었다. 또한, 세계 총 교역에서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6.8%에서 2014년 15.1%로 낮아졌다. 자본재는 다른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기계, 설비 등으로 자본재 교역 둔화는 전 세계 생산능력 저하, 투자 침체 및 국제 교역 감소로 연결 될 수 있다.

■ 세계 자본재 교역 구조의 변화

(분석 내용) 전 세계 자본재 교역 구조는 1995~2014년까지 UN Comtrade의 BEC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5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변화와 한국의 위상,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의 교역 변화,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 및 한국의 지역 간 교역, 지역 간 자본재 교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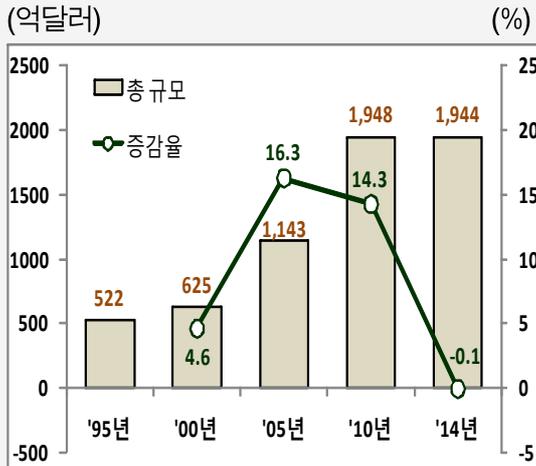
(분석 결과) 첫째,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자본재 교역 증가세와 비중이 모두 하락했다.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들의 자본재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1.1조 달러에서 2014년 약 3.4조 달러로 약 3.2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교역 증가세는 2000~2005년 연평균 10.4%에서 2010~2014년 7.2%로 하락했고 세계 총 자본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3.2%p 낮아졌다. 한국의 자본재 교역 규모는 2010년 1,948억 달러에서 2014년 1,944억 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또한,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도 2010년 4.4%(세계 5위)에서 2014년 3.6%(세계 7위)로 하락했고 자본재 교역 수지도 동기간 773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감소하며 위상이 악화되고 있다.

둘째,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자본재 교역 확대 기여율은 상승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폭 하락했다.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확대 기여율은 2000년 61.6%에서 2014년에는 67.9%로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여율은 2005년 5.2%, 2010년 8.1%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0.04%로 급락했다.

셋째,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상호 교역 규모는 확대됐지만 한국의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약화되었다.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상호 자본재 교역은 매년 7%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이 전세계 자본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43.1%에서 2014년 44.2%로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과 이들 국가들 간 자본재 교역 규모는 2010년 1,134억 달러에서 2014년 1,112억 달러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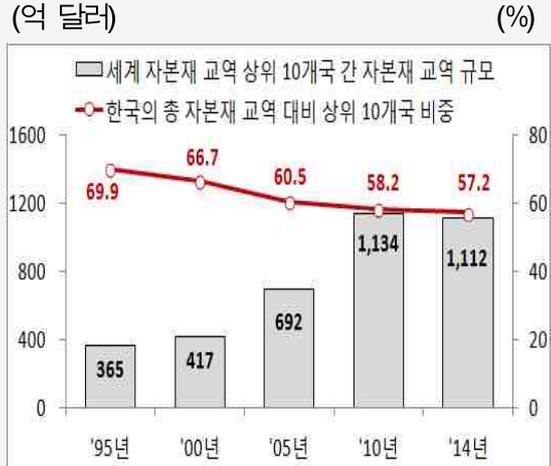
되었다. 또한,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이 한국의 총 자본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69.9%에서 계속 하락하며 2014년 57.2%로 낮아졌다.

<한국의 총 자본재 교역 규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연도별 총교역 규모 및 구간별 연평균 증감률임.

<한국과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자본재 교역 규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넷째,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과 한국 모두 아시아, 기타 지역과의 자본재 교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對 아시아 자본재 교역 비중은 1995년 23.0%에서 2014년 29.0%로 약 6.0%p, 기타 지역도 동기간 29.6%에서 33.0%로 약 3.4%p 확대됐다. 한국도 아시아에 대한 자본재 교역 비중이 1995년 37.4%에서 2014년 48.3%로 10.9%p 상승했으며, 자본재 수지 흑자도 對 아시아가 2014년 279억 달러로 전체의 약 38.7%를 차지한다.

다섯째, 지역 간 자본재 교역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자본재 교역 증가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과 아시아 간 교역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의 자본재 역내 교역 비중도 1995년 42.1%에서 2014년 51.3%로 여타 지역보다 가장 빠르게 확대되었다.

■ 시사점

한국의 자본재 교역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자본재 교역 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자본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자본재 시장 내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둘째**,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국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차별화된 시장 전략으로 자본재 교역 규모 자체는 물론 수지 흑자 규모 확대도 꾀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자본재 관련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1.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세 둔화

-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세가 지속 둔화되는 가운데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정체되고 있어 전 세계 생산 능력 저하, 투자 위축으로 인한 국제 교역 감소 등으로 연결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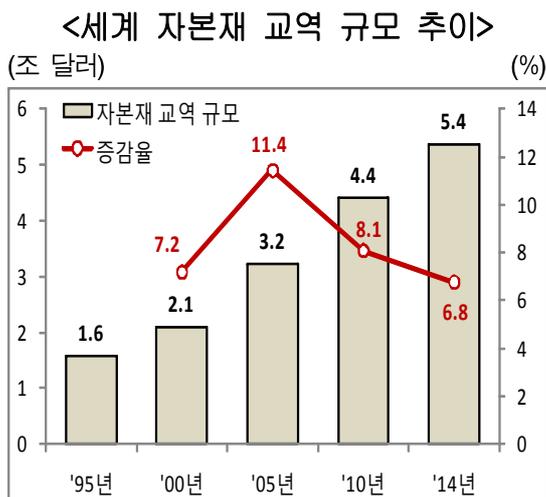
-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세 둔화¹⁾

- 세계 자본재(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 기계, 설비 등이 포함)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1.6조 달러에서 2014년 약 5.4조 달러로 약 4배 확대
- 반면,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세는 2000년 대비 2005년 연평균 11.4%를 정점으로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연평균 8.1%, 2014년에는 2010년 대비 6.8%로 증가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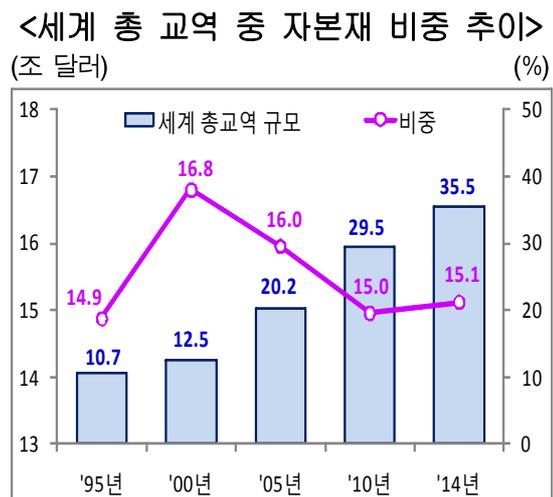
- 세계 총 교역 중 자본재 교역 비중도 정체

- 2000년 16.8%까지 상승했던 세계 총 교역 대비 자본재 교역 비중이 2010년에는 15.0%까지 하락, 2014년에 15.1%로 정체세를 보이고 있음

- 본고에서는 세계 및 한국의 자본재 교역 구조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자본재 산업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1) 상품별 세계 교역은 UN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구분에 따라 분류. BEC코드는 1960년대말 개발됐으며 국제교역상품을 사용목적(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별로 구분하며 SITC 3단위와 연계됨.

2. 세계 자본재 교역 구조의 변화

2-1. 주요 분석 내용

○ **상품의 성격별로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로 구분되는데 그 중 자본재의 교역 구조 변화 등을 주요국 중심으로 분석**

- 분석 기간

- 1995~2014년까지의 19년간을 분석 기간으로 함
- 단, 분석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4개 기간(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데이터 출처

- UN Comtrade 데이터를 활용2)

- 분석 내용

- 한국을 포함한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의 변화 및 이들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확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
- 또,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 간 교역 및 對 지역 간 자본재 교역 추이 분석을 통해 교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 봄
- 한편, 주요 지역 간 자본재 교역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 간 교역 현황 변화를 보완 설명하고자 함

<분석 기간, 데이터 및 주요 분석 내용>

분석 기간	· 1995~2014년(1995년부터 매 5년 간을 분석대상으로 함)
데이터 출처	· UN Comtrade
분석 대상 자본재 코드	· 41(운송장비 제외), 521(산업용을 포함한 운송장비)의 합 :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 기계, 설비 등을 포함
주요 분석 내용	· 상품별 한국 및 세계 10대 교역국의 변화 · 상품별 한국 및 세계 10대 교역국의 對 세계 교역 확대 기여도 · 상품별 한국 및 세계 10개 교역국 간 교역 및 對 지역 간 교역 · 상품별 한국 및 주요 지역 간 교역

- 주 1) 지역 간 교역 분석은 2014년 기준 100대 교역국(전체 교역의 99.7% 차지)이 대상임.
2) 상품 코드는 최종 소비에 따른 경제 단위별 기준인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임.

2) UN comtrade의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이부형조호정, '세계 10대 교역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16-12호,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4월 6일과의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함임.

2-2. 주요 분석 결과

가.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및 한국의 위상

○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1995년 이후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들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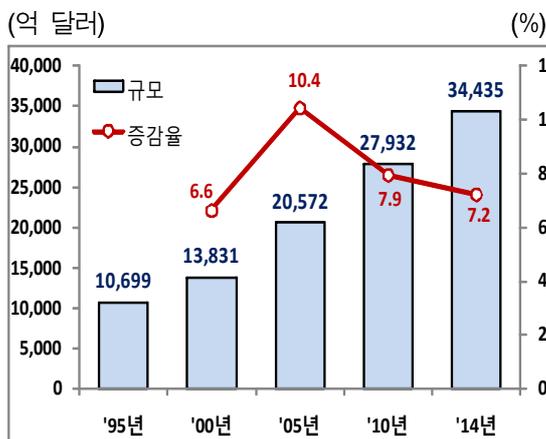
-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들의 교역 증가세 둔화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들의 총 자본재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1조 699억 달러에서 2014년 약 3조 4,435억 달러로 지난 19년 간 약 3.2배 증가
- 하지만, 이들의 총 자본재 교역 규모 증가세는 2000년 대비 2005년 연평균 약 10.4% 증가를 정점으로 하락, 2010년 대비 2014년 약 7.2%를 기록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대국들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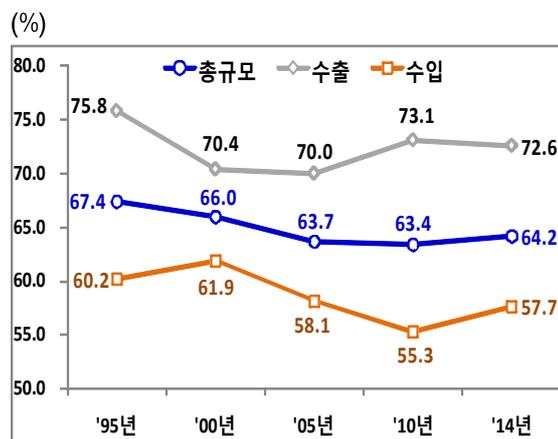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들의 총 자본재 수출이 세계 자본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5.8%에서 2014년 72.6%로, 동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60.2%에서 57.7%로 하락
- 이 결과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들이 차지하는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도 동기간 약 67.4%에서 약 64.2%로 약 3.2%p 하락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규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연도별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의 총교역 규모 및 구간별 연평균 증감률임.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비중>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연도별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한국) 최근 들어 한국의 자본재 교역 규모가 감소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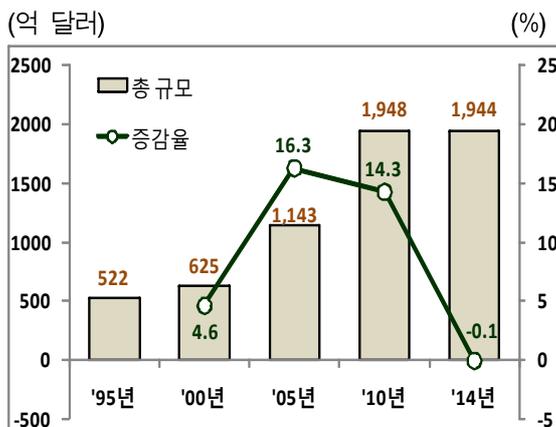
- 한국의 총 자본재 교역 규모 축소

- 한국의 총 자본재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522억 달러에서 2010년 약 1,948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1,944억 달러로 2010년 대비 연평균 0.1% 감소

- 세계 자본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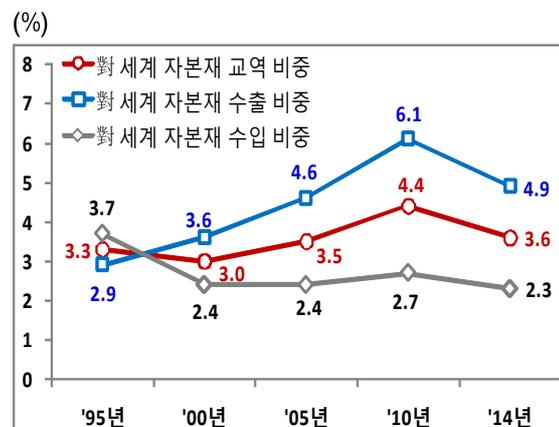
- 세계 자본재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 자본재 수출 비중은 1995년 2.9%에서 2010년 6.1%(세계 5위)로 상승했으나, 2014년에는 4.9%(세계 5위)로 하락
- 동 한국의 자본재 수입 비중은 1995년 3.7%를 기록한 후 2%대로 하락, 2014년에는 2.3%를 차지
- 이로 인해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도 2010년에는 4.4%(세계 5위)까지 상승했으나, 2014년에는 3.6%(세계 7위)로 재하락

<한국의 총 자본재 교역 규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연도별 총교역 규모 및 구간별 연평균 증감률임.

<한국 자본재 교역의 對 세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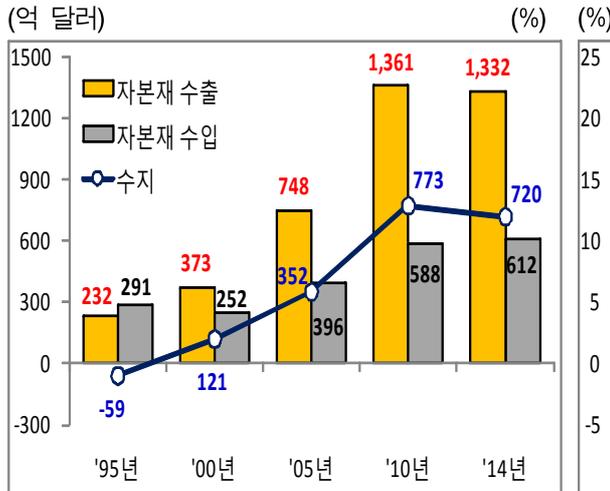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한국의 자본재 교역이 세계 자본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 최근 들어 자본재 교역 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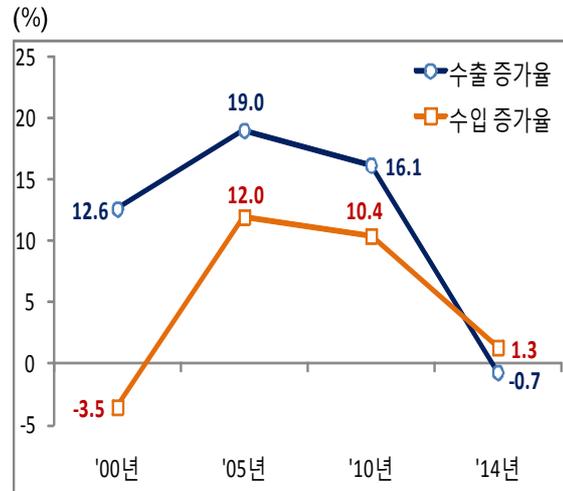
- 한국의 자본재 수출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5년 연평균 19.0% 증가한 후 증가세가 둔화,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연평균 0.7% 감소
- 동기간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12.0%에서 1.3%로 수출보다 하락세가 약해, 전체 자본재 교역 수지도 2010년 773억 달러에서 2014년 720억 달러로 감소

<한국의 총 자본재 수지 추이>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자본재 수출입 증감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감율임.

<참고 1>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변화

(단위: %)

1995년		2000년		2005년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미국	16.1	1. 미국	19.1	1. 미국	14.7
2. 독일	10.8	2. 독일	9.3	2. 독일	10.3
3. 일본	10.5	3. 일본	8.3	3. 중국	10.2
4. 영국	6.4	4. 영국	5.8	4. 일본	6.0
5. 프랑스	5.8	5. 프랑스	5.0	5. 영국	4.7
6. 이탈리아	4.2	6. 캐나다	4.1	6. 프랑스	4.4
7. 싱가포르	3.8	7. 중국	3.9	7. 한국	3.5
8. 캐나다	3.4	8. 이탈리아	3.8	8. 이탈리아	3.4
9. 한국	3.3	9. 네덜란드	3.4	9. 네덜란드	3.4
10. 중국	3.2	10. 멕시코	3.2	10. 캐나다	3.1

2010년		2015년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중국	15.7	1. 중국	17.0
2. 미국	12.5	2. 미국	13.3
3. 독일	9.0	3. 독일	8.9
4. 일본	5.4	4. 일본	4.4
5. 한국	4.4	5. 홍콩	3.8
6. 프랑스	4.0	6. 프랑스	3.8
7. 홍콩	3.3	7. 한국	3.6
8. 네덜란드	3.2	8. 멕시코	3.2
9. 영국	3.0	9. 네덜란드	3.2
10. 이탈리아	2.9	10. 영국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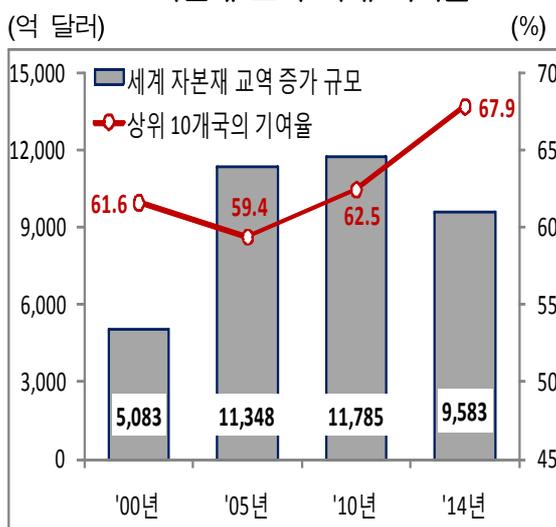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확대 기여도

○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확대 기여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확대 기여율은 대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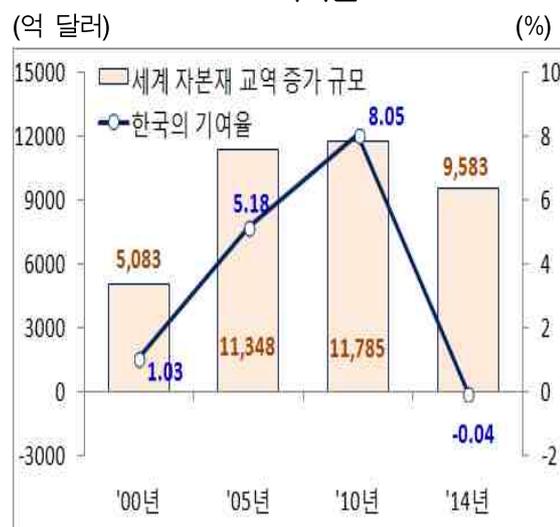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들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기여율 상승
 -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 규모는 2010년 1조 1,785억 달러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9,583억 달러로 약 18.7% 하락
 - 하지만,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들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기여율은 2000년 61.6%에서 2005년 59.4%로 하락한 후 2014년에는 67.9%까지 확대
-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기여율 급락
 - 한국의 경우, 자본재 교역 규모가 2010년 805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2014년에는 4억 달러 감소
 - 이로 인해,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 기여율이 동기간 8.1%에서 -0.04%로 하락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확대 기여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기여율=상위 10개국 자본재 교역 증가 규모/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 규모*100.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확대 기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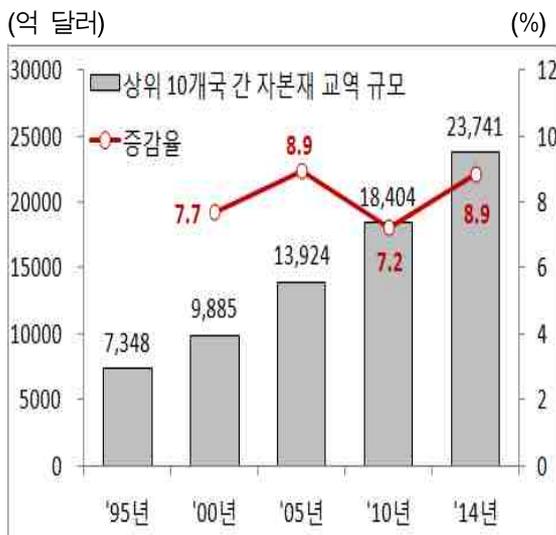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기여율=한국의 자본재 교역 증가 규모/세계 자본재 교역 증가 규모*100.

다.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교역

○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교역)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의 상호 자본재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간 교역이 對 세계 자본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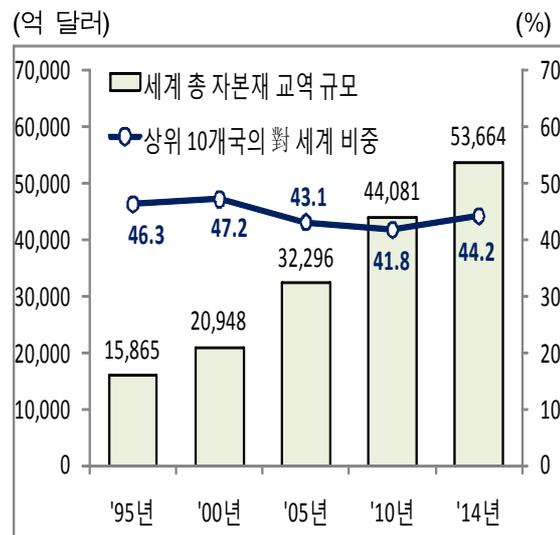
-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상호 자본재 교역 규모 증가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 간 상호 자본재 교역은 매년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 간 상호 자본재 교역 규모는 1995년 7,348억 달러에서 2조 3,741억 달러로 약 3.2배 증가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 간 상호 자본재 교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 축소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 간 상호 자본재 교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은 2000년 47.2%까지 확대되었으나, 2014년에는 44.2%로 하락
 - 단, 2010년 41.8%에 비해서는 높으나, 여전히 1995년 46.3%보다는 낮음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상호 자본재 교역 규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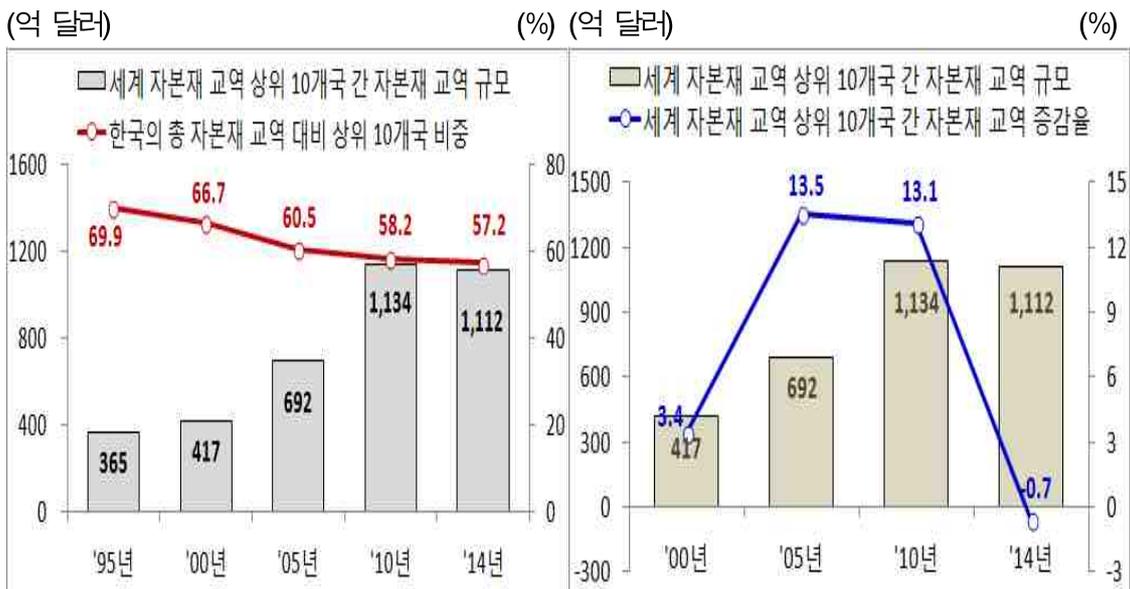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과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교역)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 개국에 대한 한국의 자본재 교역 의존도 약화

- 한국의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과의 자본재 교역 규모 및 비중 축소
 - 한국의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과의 자본재 교역 규모는 1995년 365 억 달러에서 2010년 1,134억 달러로 약 3.1배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1,112억 달러로 약 1.9% 감소
 - 이로 인해, 한국의 총 자본재 교역 대비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 비중도 1995년 69.9%에서 2014년 57.2%로 하락
- 한국의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과의 자본재 교역 증가세 둔화
 - 한국의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과의 자본재 교역은 2010년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연평균 0.7%씩 감소

<한국과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자본재 교역 규모>

<한국과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 간 자본재 교역 증가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 1) 상위 10개국은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을 말함.
- 2) 2000년은 한국이 세계 자본재 교역 11위로 10개국과의 자본재 교역 규모이나, 나머지 년도는 상위 9개국과의 자본재 교역 규모임.
- 3)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라.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과 지역 간 교역

○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지역 간 자본재 교역)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의 자본재 교역은 아시아와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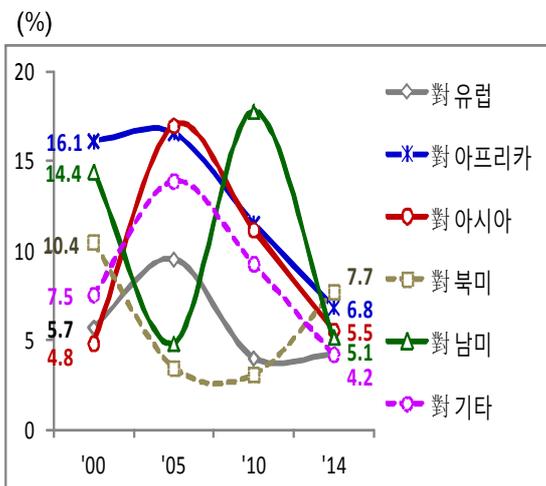
- 최근 북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들과의 교역 규모 증가세가 둔화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과 지역 간 교역을 살펴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기타 지역은 2005년 이후, 남미는 2010년 이후 자본재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다만, 북미는 2010년 이후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과의 자본재 교역 규모가 확대

- 교역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은 아시아와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자본재 교역 규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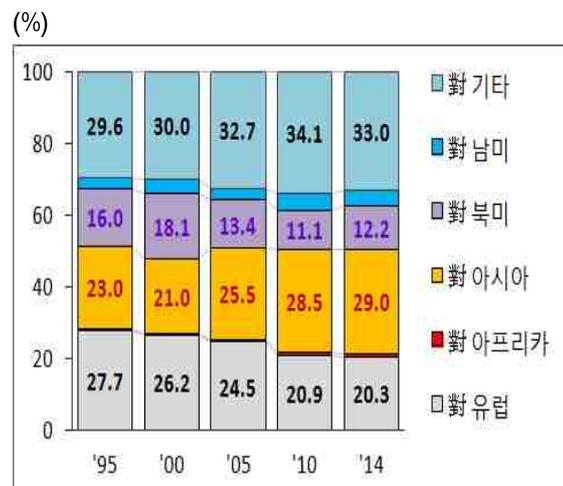
-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 10개국의 對 아시아 자본재 교역 비중은 1995년 23.0%에서 2014년 29.0%로 약 6.0%p 확대되었으며, 기타 지역은 동기간 29.6%에서 33.0%로 약 3.4%p 확대됨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과 지역 간 자본재 교역 증가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세계 10대 자본재 교역국의 전체 자본재 교역 대비 각 지역 비중 추이>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의 지역 간 자본재 교역)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한국의 자본재 교역이 확대·재편되는 가운데 자본재 교역 수지 흑자도 아시아와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

- 한국의 자본재 교역, 아시아 중심으로 확대·재편

- 한국의 지역 간 자본재 교역 비중은 1995년 아시아 37.4%, 북미 27.1%, 유럽 22.2%에서, 2014년 아시아 48.3%(10.9%p 상승), 북미 13.5%(13.6%p 하락), 유럽 19.6%(2.6%p 하락)로 변화
- 한편, 기타 지역도 동기간 6.6%에서 12.3%로 약 2배 정도 비중이 확대

- 한국의 자본재 교역 수지 흑자도 아시아와 기타 지역 중심으로 대폭 확대

- 2014년 기준 한국의 자본재 교역 수지 흑자 규모는 對 아시아 279억 달러 (전체 흑자의 약 38.7%), 對 기타 지역 215억 달러(동 29.8%)로 전체 흑자의 약 68.5%를 차지

<한국의 지역 간 자본재 교역 비중>
(%)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한국의 지역별 자본재 교역 수지>
(억 달러)

	'95년	'00년	'05년	'10년	'14년
유럽	-10	46	122	173	44
아프리카	2	3	11	17	19
아시아	-51	-19	58	212	279
북미	-36	32	34	56	79
남미	24	21	28	92	84
기타	12	38	100	222	215
합계	-59	120	352	773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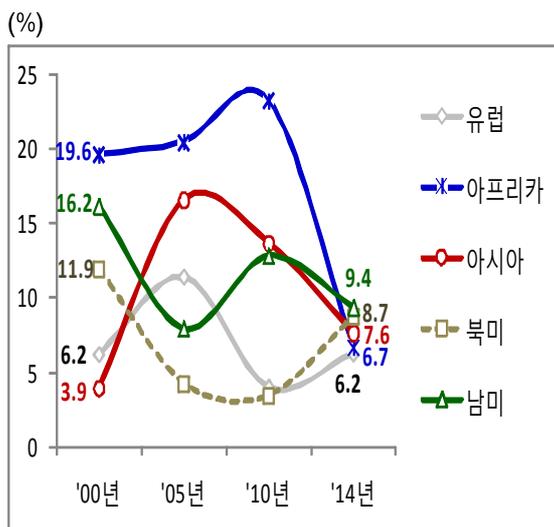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마. 지역 간 자본재 교역

○ 지역 간 자본재 교역은 아시아와 기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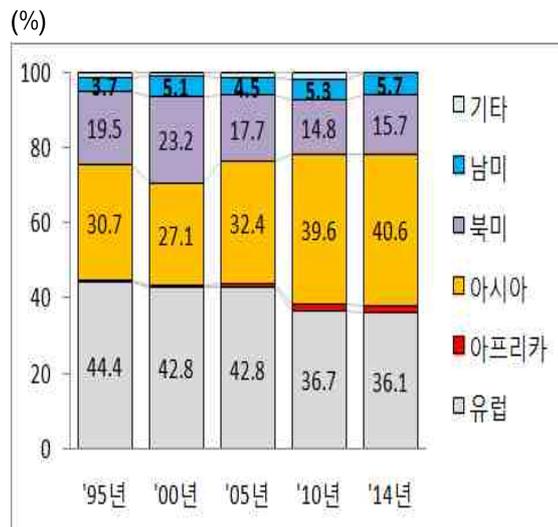
- 아시아의 자본재 교역 증가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둔화되었으나,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은 지속 확대
 - 아시아의 자본재 교역 증가율은 2005년 16.5%에서 2014년 7.6%로 급감
 - 단, 아시아가 차지하는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은 2000년 27.1%에서 2014년 40.6%까지 확대
- 북미의 경우, 자본재 교역 증가세와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 모두 최근 들어 회복세로 전환
 - 북미 지역의 자본재 교역 증가율은 1995년 대비 2000년 연평균 11.9%에서 2005년 대비 2010년 3.4%로 하락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8.7%로 회복됨과 동시에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도 2010년 14.8%에서 2014년 15.7%로 소폭 상승
- 유럽은 자본재 교역 증가세는 최근 소폭 상승했으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은 지속 축소
 - 유럽의 자본재 교역 증감률은 2005년 대비 2010년 연평균 4.0%까지 하락하였으나,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6.2%까지 회복
 - 단,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은 1995년 44.4%에서 2014년 36.1%로 지속 축소

<지역별 자본재 교역 증감률 추이>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지역별 자본재 교역 비중 추이>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 아시아 중심으로 세계 자본재 교역이 재편 중

- 2014년 역내 자본재 교역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지역은 유럽 59.9%와 아시아 51.3%임
- 한편, 전 지역에서 對 아시아 자본재 교역 비중이 상승했는데, 1995년 대비 2014년 유럽은 8.3%p, 아프리카는 12.2%p, 아시아는 9.2%p, 북미는 5.4%p, 남미는 14.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 간 자본재 교역 비중 추이>

구분	상대지역	'95년	'00년	'05년	'10년	'14년
유럽	유럽	65.1	65.1	64.6	60.3	59.9
	아프리카	0.9	1.2	1.6	1.7	1.6
	아시아	16.0	15.2	19.4	24.1	24.3
	북미	10.8	12.3	8.7	7.5	8.5
	남미	1.6	1.7	1.4	2.1	2.1
	기타	5.6	4.5	4.3	4.3	3.7
아프리카	유럽	60.4	56.9	51.9	36.8	35.2
	아프리카	0.7	5.4	5.9	8.5	9.8
	아시아	16.0	16.4	25.4	32.1	38.2
	북미	10.1	15.9	8.6	9.1	7.4
	남미	0.6	1.2	2.4	1.5	1.5
	기타	12.2	4.1	5.7	12.0	7.9
아시아	유럽	23.5	21.8	22.5	20.4	19.6
	아프리카	0.4	0.6	0.8	1.2	1.3
	아시아	42.1	41.9	47.3	50.1	51.3
	북미	24.0	24.5	18.2	14.8	15.3
	남미	3.2	2.6	2.1	3.9	3.3
	기타	6.8	8.6	9.1	9.7	9.1
북미	유럽	21.0	21.0	18.5	16.4	16.5
	아프리카	0.3	0.6	0.6	0.6	0.7
	아시아	36.9	31.7	39.5	41.8	42.3
	북미	27.6	27.8	24.7	19.1	18.8
	남미	8.7	12.8	12.2	17.2	17.8
	기타	5.5	6.2	4.4	4.9	3.8
남미	유럽	20.2	14.2	13.2	14.1	13.6
	아프리카	0.1	0.2	0.4	0.4	0.4
	아시아	11.6	9.0	16.5	24.1	26.2
	북미	53.9	66.1	52.9	44.9	47.4
	남미	11.3	8.4	13.9	13.9	10.4
	기타	2.8	2.1	3.1	2.7	2.0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4년 100대 자본재 교역국 기준임.

3. 시사점

○ 최근 들어 한국의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내 위상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요 자본재 교역국과의 자본재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등 세계 자본재 교역 구조 변화에 대한 보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첫째, 국내 자본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 자본재 시장 내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함

- 최근 자본재 부문도 ICT 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타 부문과의 네트워크화가 촉진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함
- 한편, 이를 통해 개발된 융합 자본재 상품의 시장화 촉진을 위한 각종 규제 선진화와 개선 등을 통해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나아가 향후 세계 자본재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계 표준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관련 국내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이 매우 중요함³⁾
- 또, 국내 자본재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수입 대체 및 미래 수출 산업화 가능한 부문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세계 자본재 교역 상위국 시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함

- 세계 상위 10개국 간 자본재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들이 차지하는 對 세계 자본재 교역 비중도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60%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 지역 내 시장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특히, 세계 상위 10개국들은 한국과 세계 시장 내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협력과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구분 없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함

3)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 또는 세계 표준 획득을 위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전략 설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는 자본재 전반에 걸친 인프라 성격의 지식재산 또는 세계 표준 확보를 위한 중장기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셋째, 지역별 차별화된 시장 전략을 통해 자본재 교역 규모 자체는 물론 수지 흑자 규모 확대를 꾀해야 함
 - 한국의 경우, 세계 자본재 교역 구조 변화에 비교적 잘 대응해 왔다고 판단되나, 아시아에 대한 수출현상이 매우 커 아시아 지역 내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됨
 - 특히, 남미와 유럽 지역에 대한 자본재 교역 비중이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지역에 대한 자본재 교역 수지 흑자 규모도 대폭 축소되고 있어 이들 지역과의 교역에서의 이익 최대화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또, 최근 우리나라와 자본재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기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확대 노력을 통해 세계 자본재 시장 내 한국의 위상 제고를 꾀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자본재 관련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자본재 관련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타국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관련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실적 악화 기업은 물론 여전히 시장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비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임
 -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시킴으로써 미래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부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조호정 연 구 위 원 (2072-6217, chjss@hri.co.kr)

<부록 1> 세계 자본재 100대 교역국의 지역 구분

(단위: %)

지역	국가
유럽(36개국)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아프리카(17개국)	알제리,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아시아(30개국)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중국, 홍콩, 마카오, 조지아(그루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카타르,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터키 아랍 에미리트, 베트남, 예멘
북미(2개국)	캐나다, 미국
남미(15개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자료 : UN 지역(Regional groupings) 구분에 따라 5개 지역으로 재정리 .

주 : 2014년 교역 규모 기준이며, 알파벳 순임.

<부록 2> 세계 10대 자본재 수출국 변화

(단위: %)

1995년		2000년		2005년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일본	16.3	1. 미국	16.6	1. 독일	13.2
2. 미국	14.8	2. 일본	12.1	2. 중국	12.5
3. 독일	13.6	3. 독일	11.2	3. 미국	11.7
4. 영국	6.5	4. 영국	5.6	4. 일본	8.4
5. 프랑스	6.2	5. 프랑스	5.5	5. 한국	4.6
6. 이탈리아	5.2	6. 이탈리아	4.2	6. 프랑스	4.6
7. 싱가포르	4.3	7. 중국	4.1	7. 영국	4.3
8. 네덜란드	3.2	8. 캐나다	3.9	8. 이탈리아	4.1
9. 캐나다	2.9	9. 네덜란드	3.6	9. 네덜란드	3.7
10. 한국	2.9	10. 한국	3.6	10. 멕시코	2.8

2010년		2015년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중국	21.1	1. 중국	23.6
2. 독일	11.1	2. 독일	11.2
3. 미국	9.6	3. 미국	9.7
4. 일본	7.6	4. 일본	5.3
5. 한국	6.1	5. 한국	4.9
6. 프랑스	4.3	6. 프랑스	4.0
7. 이탈리아	3.5	7. 멕시코	3.8
8. 네덜란드	3.5	8. 홍콩	3.5
9. 홍콩	3.2	9. 네덜란드	3.4
10. 멕시코	3.1	10. 이탈리아	3.3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부록 3> 세계 10대 자본재 수입국 변화

(단위: %)

1995년		2000년		2005년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미국	17.4	1. 미국	21.6	1. 미국	17.6
2. 독일	7.9	2. 독일	7.3	2. 중국	7.9
3. 영국	6.2	3. 영국	6.0	3. 독일	7.4
4. 프랑스	5.4	4. 일본	4.6	4. 영국	5.0
5. 일본	4.5	5. 프랑스	4.5	5. 프랑스	4.2
6. 중국	4.3	6. 캐나다	4.3	6. 일본	3.7
7. 캐나다	3.9	7. 중국	3.8	7. 캐나다	3.5
8. 한국	3.7	8. 이탈리아	3.3	8. 네덜란드	3.1
9. 홍콩	3.6	9. 네덜란드	3.3	9. 홍콩	2.9
10. 싱가포르	3.3	10. 홍콩	3.1	10. 이탈리아	2.8

2010년		2015년	
순위	비중	순위	비중
1. 미국	15.4	1. 미국	17.1
2. 중국	10.3	2. 중국	10.0
3. 독일	6.8	3. 독일	6.5
4. 프랑스	3.8	4. 홍콩	4.1
5. 영국	3.7	5. 영국	3.8
6. 홍콩	3.3	6. 프랑스	3.5
7. 캐나다	3.3	7. 일본	3.5
8. 일본	3.1	8. 캐나다	3.4
9. 네덜란드	2.9	9. 네덜란드	2.9
10. 한국	2.7	10. 러시아	2.8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